

《宋書》의 인물묘사 기교와 방법

- 〈本紀〉와 〈列傳〉을 중심으로 -

양 승 덕*

〈目次〉

I. 서론	2.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생동적 기록
II. 《송서》의 인물묘사 기교와 방법	3. 면밀한 형상 묘사
1. 시대적 특징의 외모묘사	4. 개성적 언행 선택
	III. 결론

I. 서론

《宋書》는 488년에 南齊 武帝의 명을 받아 沈約이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로, 동진의 뒤를 이은 南朝 劉宋 (420년~479년)의 역사를 담았다. 本紀 10권, 列傳 60권, 志 30권으로 모두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송이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송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동시대의 자료를 많이 수록하고 있어 사료적, 문학적 가치가 높다.

현재 학술계에서 《송서》의 문학적 가치를 중시한 결과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지만 《송서》의 인물묘사에 관한 연구 논문은 전무하다¹⁾. 그러므로 《송서》의 인물묘사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 청운대학교 외국어대학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부교수

1) 《송서》의 인물묘사에 관한 연구 논문은 중국학자 李敏의 〈宋書人物描寫的

《송서》의 인물묘사는 주로 용모, 재학, 심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독특한 행동거지를 통하여 그 인물만의 성격을 써내어 생동적이고 아담한 멋을 만들어냈다. 郝懿行은 《宋瑣語·自序》에서 《宋書》를 “심약의 《송서》는 華瞻하고 아름다운 것이 마치 고운 비단처럼 무성하고 새로운 풍격이 있다. 이따금 그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것 같다. 반고의 《한서》, 범엽의 《후한서》, 진수의 《삼국지》 이외에 새로운 풍격을 열었고 近古의 史書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²⁾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의 평가처럼 심약은 《송서》에서 인물을 묘사할 때, 생생한 문필로 인물과 정경을 살아있는 듯이 그대로 써내어 그 사람, 그 일, 그 상황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II. 《송서》의 인물묘사 기교와 방법

1. 시대적 특징의 외모묘사

《송서》의 인물묘사는 《世說新語》와 유사하고³⁾내용은 대부분이 인물품평과 명사들의 풍채와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인물 언행에 대한 평론 중에서 인물의 재능, 품성, 몸가짐 등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심미적인 요구와 관점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당시 士族의 사상품격과 생활 풍조를 이해할 수 있다.

《송서》는 인물에 대한 품평을 중시했다. 이것은 한말 유풍을 계승한 동란 시기의 산물이다. 魏晉 때는 구품관인법을 제정하여 인재를 선발하였

特色)(<遼寧行政學院學報> 3期, 2007)가 유일하고, 국내 중문학계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음.

2) (明)曹臣編纂, 喻岳衡點校, (清)郝懿行編纂, 喻岳衡點校, 《舌華錄·宋瑣語》, 長沙嶽麓書社, 1985, 166쪽. “沈休文之《宋書》華瞻清妍, 纖穠有體, 往往讀其書如親見其人. 於班範書, 陳壽志之外, 別開蹊徑, 抑亦近古史書之最良者也”

3) 李柏, 《世說新語人物形象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5年5月.

는데, 각 주군에 관리를 두어 해당 지역 인물의 우열을 품평하고 선발하여 관직을 수여하게 하였다. 이에 사대부들은 자주 모임을 하였고 인물품평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명망을 쌓았다.

심약이 생활한 시대는 漢末부터 시작된 인물품평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위친 시기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널리 유행하였다. 인물에 대한 품평은 용모와 행동거지, 의태와 풍채 및 태도, 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송서》의 인물묘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다.

《송서》는 특히 개인의 형상과 표정 태도에 대한 묘사를 중시했다. 예를 들어 羊欣을 “羊欣은 젊었을 때 성격은 차분하고 사람과 이기려고 애 쓰지 않으며 화목하게 담소하며 용모와 행동거지 다 훌륭하다.”⁴⁾라고 썼고, 劉義隆을 “하늘이 총명한 자질을 부여하여 스스로 군자의 덕을 누렸다.”⁵⁾라고 썼으며, 謝晦를 “풍채와 태도가 아름답고 언사에 뛰어나며 재미가 있고 눈썹과 눈은 수려하며 귀 밑털은 칠흑 같다.”⁶⁾라고 말했고, 江夷를 “풍채가 아름답고 거동은 소탈하다.”⁷⁾라고 말했으며, 劉義恭을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영특했으며 모습은 아름답다.”⁸⁾라고 말했다.

그 당시 상류층사회에서는 용모가 수려하고 풍채와 태도가 멋스러우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했다. 예를 들어 〈張暢傳〉

“원가 30년(453) 원홍이 임금을 죽이고 반역했는데, 義宣은 애도 의식을 올린 그날 거병했다. 張暢은 원로로 관리의 우두머리였고, 표정은 항상 슬퍼 보였지만 당시에는 영향력이 컸다. 그가 애도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황색 가죽의 주름 바지를 입고 射堂에 가 병사를 선별했다. 그의 음성, 용모, 행동거지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본 사람들은 그를 위해 목숨을 다할 것을 원했다.”⁹⁾

4) 《宋書》62卷〈羊欣傳〉“少靖默，無競於人，美言笑，善容止”

5) 《宋書》5卷〈文帝紀〉“天授和敏之資，自享君人之德”

6) 《宋書》44卷〈謝晦傳〉“美風姿，善言笑，眉目分明，髮如點漆”

7) 《宋書》53卷〈江夷傳〉“美風儀，善舉止”

8) 《宋書》61卷〈江夏文獻王義恭傳〉“幼而明穎，資顏美麗”

인물의 거동이나 풍채와 태도를 묘사한 단어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장창의 맵시에 대한 묘사는 주목할 만하다. 장창의 “音儀容止”를 보면 “見者皆爲盡命”하게 될 정도이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길 원한다는 사실이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한 행위는 풍채를 중시하는 그 당시의 풍조를 가장 잘 반영했다.

〈張敷傳〉에서는 장부의 말투와 목소리의 매력을 묘사했다.

“그는 음악과 예의에 뛰어나 음절의 경중과 빠름, 느낌의 변화를 이해했다. 그가 다른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당신에게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노래를 부른 후에도 그 소리가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張氏 후인들은 그를 오늘날까지 부러워했는데, 이것은 장부에 의해 처음으로 비롯되었다.”¹⁰⁾

노래를 마친 후에도 여음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아 장씨 후인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심지어 모방까지 했다. 심약은 과장된 필법으로 장부의 비범한 모습과 풍채 및 태도를 독자 앞에 펼쳐놓았다.

〈王惠傳〉에서 심약은 의용과 침착함을 지닌 왕혜를 칭찬했다.

“王惠는 조용하고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진군의 사침은 재주와 말솜씨가 있고 풍채와 태도 또한 훌륭하여, 일찍이 형제들과 왕혜를 따르고 방문했다. 담론 풍조가 일었고, 담론은 문과 사에 걸쳐 발했다. 왕혜는 사람들을 응대할 때, 그의 말은 맑고 도리는 깊어 사침 등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물러섰다. 일찍이 曲水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바람과 비가 갑자기 닥치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왕혜 만은 느긋하게 일어났다. 그 자태와 용모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¹¹⁾

9) 《宋書》46卷〈張暢傳〉“元凶弑逆，義宣發哀之日，即便舉兵，暢爲元佐，舉哀畢，改服著黃袴褶，出射堂簡人，音儀容止，眾皆矚目，見者皆爲盡命”

10) 《宋書》46卷〈張敷傳〉“善持音儀，盡詳緩之致，與人別，執手曰念相聞，餘響久之不絕，張氏後進至今慕之，其源流起自敷也”

11) 《宋書》46卷〈王惠傳〉“惠恬靜，不交遊，陳郡謝瞻，才辯有風氣，嘗與兄弟群從

이러한 인물 묘사방식은 《世說新語》와 상당히 유사하다.¹²⁾ 폭풍우가 왔을 때 놀라 허둥대며 어쩔 줄을 모르는 무리와 차분한 왕혜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필법은 소설가와 비견 된다.

심약은 역사 인물을 소개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와 사신의 평론으로 보조 설명을 했다. 〈謝莊傳〉에서 사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謝莊은 자가 희일이고 진군 양하 사람으로 태상 홍미의 아들이다. 나이 7살에 문장을 지었고 《論語》에 통달했다. 자라면서 용의가 아름다워졌다. 태조가 그를 보고 기이하다고 여겨 尚書仆射 은경인, 領軍將軍 유담에게 밭에서 옥이 나왔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¹³⁾

태조의 말을 빌리어 사장의 아름다운 용안과 거동을 찬미하면서 그를 쪽 밭의 아름다운 옥이라고 일컬었다. 본래 전해져 내려오기 쉽지 않은 인물의 맵시와 비범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듯이 살아있는 형상으로 변화시켜 사장의 아름다운 용모에 대하여 무궁한 연상을 자아나게 만들었다.

〈王曇首傳〉에서 심약은 고조의 말을 인용하여 왕담수의 도량을 증명했다.

“담수는 식견과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기쁨과 두려움을 얼굴빛에 보이지 않았으며 규중에서는 늘 온화하다. 손에는 금과 옥을 잡지 않았고 부녀자가 장식하고 꾸미지 하게 않았으며 스스로가 녹으로 하사받은 것이 아니면 조금도 남에게 받지 않았다. 고조가 이를 알고 왕담수는 굳세고 도량이 있어 재상의 재능을 갖추었다고 태조에게 말했다.”¹⁴⁾

造惠, 談論風起, 文史間發, 惠時相酬應, 言清理遠, 瞻等慚而退, 嘗臨曲水, 風雨暴至, 座者皆馳散, 惠徐起, 姿貌不異往日”

12) 李柏, 《世說新語人物形象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5年5月.

13) 《宋書》85卷〈謝莊傳〉“謝莊, 字希逸, 陳郡陽夏人, 太常弘微子也. 年七歲, 能屬文, 通《論語》. 及長, 詔令美容儀, 太祖見而異之, 謂尚書仆射殷景仁, 領軍將軍劉湛曰田出玉, 豈虛也哉!

14) 《宋書》85卷〈王曇首傳〉“曇首有識局智度, 喜懾不見於色, 閨門之內, 雍雍如也.

이러한 묘사방식은 사전 속 인물의 형상을 풍부하게 그려냈고, 그 정신 면모를 충분히 펼쳐 보인 동시에 史書에 문학적 색채를 더했으며 사학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러한 인물묘사 기법은 오늘날의 문학창작에 있어서 여전히 모범이 된다.

2.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생동적 기록

《송서》는 조정의 내외 세태와 정취를 많이 반영했다. 귀족 사대부의 언행과 심리 활동에 관련된 일화와 재미있는 일화를 통하여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그 시대의 전형적인 역사특징과 사회 풍조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다.

〈前廢帝本紀〉에서는 무도하고 음란한 산음공주에 관하여 썼다.

“산음공주는 무도하고 음란했는데, 일찍이 폐제에게 나와 폐하는 비록 남녀로 유별하지만 모두 선제의 골육이다. 폐하는 후궁이 무수히 많으나 나는 부마 한사람이다. 불공평함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라고 말했다. 폐제는 공주에게 미남자 30명을 짝지어주었다……吏部郎 褚淵이 용모가 아름다웠다. 공주는 황제에게 저연이 공주를 모시라고 명령하길 청하자 황제는 허락했다. 저연은 공주를 10일 모셨다. 저연은 여러 번 꺾박을 당했는데, 저연이 죽어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공주가 풀어주었다.”¹⁵⁾

산음공주는 음란하고 방자하여 유가에서 존송하는 정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 단락은 위진남북조 시대 정신이 한대 유가 전통에서 이탈한 이후 개인의 개성이 발전되는 상황에서 부녀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手不執金玉，婦女不得爲飾玩，自非祿賜所及，一毫不受於人，高祖甚知之，謂太祖曰“王曇首沈毅有氣度，宰相才也”

- 15) 《宋書》7卷〈前廢帝本紀傳〉“山陰公主淫態過度，謂帝曰“妾與陛下，雖男女有殊，俱托體先帝。陛下六宮萬數，而妾唯駙馬一人。事不均平，一何至此。帝乃爲主置面首左右三十人……主以吏部郎褚淵貌美，就帝請以自侍，帝許之。淵侍主十日，備見逼迫，誓死不回，遂得免”

설명하고 있다. 부녀자의 지위 향상에 따라 그녀들의 성격 또한 나날이 쾌활해지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다.

〈張敷傳〉에서는 中書舍人 추당과 주규가 장부를 방문했을 때 푸대접을 받았던 상황을 묘사했다.

“中書舍人 추당과 주규는 요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부와 같이 명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장부를 방문하려 했다. 규는 그가 만약에 용납하지 않는다면 안 가느니 못 하다. 거절한다면 그래도 경솔하게 갈 것인가? 라고 말했다. 당이 “우리는 이미 員外郎 인 데, 어찌하여 함께 못 앉게 하려고 근심하는가? 라고 말했다” 장부는 침대 두 개를 벽으로부터 3, 4척이나 멀리 떨어지게 설치했고, 두 손님이 자리에 앉자 좌우를 불러 나를 손님에게서 먼 자리로 옮기라고 말했다, 규 등은 놀라 얼굴빛이 달라져 가버렸다.”¹⁶⁾

中書舍人 추당과 주규 등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위가 강좌의 명망 가족 吳郡 장씨와 평등하다고 여겨 서로 상의를 한 후에 장씨를 방문했다. 뜻밖 에 장부는 하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손님과 멀리 떨어지게 놓으라고 하자 이 두 사람은 “失色而去”했다. 비록 수 백자에 불과 하지만 그 당시의 정경과 개인의 심리적 태도를 생동감 있게 잘 표현했다.

〈劉穆之傳〉에서는 도량이 작아 하찮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劉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사례를 선택했다.

“侍中 하언이 자주 무장이 되고 싶었다고 기록하여 썼다. 유우가 크게 노하여 내가 평소에 언제 무장이 되고 싶다고 했는가? 라고 말했다. 그리 하여 하언과 절교했다. 그가 吏部尚書에 오르자 몹시 화났다. 유우의 족속 유수지가 丹陽尹이 되자 유우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집의 검은 얼 굴을 가진 阿秀는 지금 유안중 그곳에 있고 조정에는 현사가 많지 않다고

16) 《宋書》46卷〈張敷傳〉“中書舍人秋當，周糾並管要務，以敷同省名家，欲詣之。糾曰“彼若不相容，便不如不往。拒可輕往邪”當曰“吾等並已員外郎矣，何憂不得共坐”敷先設二床，去壁三四尺，二客就席，既而呼左右曰“移我遠客”糾等失色而去”

말했다. 그해 유우의 등에 종기가 났는데, 하연도 등에 종기가 났다. 중병에 걸려있던 유우는 하연이 죽었다고 듣자 기뻐 날뛰다가 죽었다.”¹⁷⁾

사소한 옛날 일로 사람과 절교하고 그 사람이 병으로 죽자 자신 또한 기뻐 날뛰다가 죽는 이러한 사람은 극단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몇 마디로 제멋대로 화를 내는 유우의 성격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範曄傳〉에서는 예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범엽을 묘사했다.

“범엽은 키가 7척이 되지 않았으나 뚱뚱하고 검었으며 눈썹은 드물었고 수염은 적었다. 그는 비파를 잘 탕고 새로운 곡을 짓곤 했다. 문제는 몇 번이나 범엽의 연주가 듣고 싶어 범엽이 연주해 주길 그에게 몇 차례 암시했다. 범엽은 그때마다 모르는 척했고, 문제를 위해 연주하지 않았다. 한 번은 문제가 잔치를 베풀어 대신들을 초청하였는데, 문제가 범엽에게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으니 당신은 나를 위해 연주해 주어라!”라고 말했다. 범엽은 문제의 말대로 했다. 문제가 노래를 마치자 범엽은 바로 연주를 멈추었다.”¹⁸⁾

문제는 범엽이 연주하는 비파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범엽은 줄곧 “偽若不曉”하고 있다가, 문제가 “我欲歌, 卿可彈”라고 말하자 억지로 연주했다. 문제가 노래를 그만두자 그도 연주를 멈추었다. 이러한 묘사는 범엽의 형상을 살아있는 듯이 독자 앞에 펼쳐 보여주었다. 예법을 무시하는 그의 행동은 후에 모반에 연루되어 죽었다.

〈何尚之傳〉에서는 민간의 질고를 모르는 송문제 劉義隆을 묘사했다.

17) 《宋書》42卷〈劉穆之傳〉“侍中何偃嘗案雲‘參伍時望.’ 瑀大怒曰‘我於時望何參伍之有.’ 遂與堰絕. 及爲吏部尚書, 意彌憤憤. 族叔秀之爲丹陽尹, 瑀又與親故書曰‘吾家黑面阿秀, 遂居劉安眾處, 朝廷不爲多士.’ 其年, 疽發背, 何堰亦發背癰. 瑀疾已篤, 聞堰亡, 歡躍叫呼, 於是亦卒”

18) 《宋書》69卷〈範曄傳〉“曄長不滿七尺, 肥黑, 禿眉須. 善彈琵琶, 能爲新聲. 上欲聞之, 屢諷以微旨, 曄偽若不曉, 終不肯爲上彈. 上嘗宴歡飲適, 謂曄曰‘我欲歌, 卿可彈.’ 曄乃奉旨. 上歌既畢, 曄止弦”

“원가 23년(446)에 玄武湖를 파다가 황제는 호수 안에 方丈, 蓬萊, 瀛洲 등 신산 세 채를 건조하고 싶었지만 하상지가 단호하게 훈계하자 황제는 그만두었다. 당시에 황제가 또 華林園을 지을 때 한여름에 백성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하상지가 백성을 쉬게 해야 한다고 훈계하자, 황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인들은 자주 스스로 등에 햇볕에 쬐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공사는 백성을 고생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¹⁹⁾

유의용은 소인들이 여름철 노역에 힘쓰지 않는다고 여겨 그들이 자주 등에 햇볕을 쬐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晉惠帝가 “잘게 썬 고기를 왜 먹지 않는가?”²⁰⁾라고 말한 것과 더불어 웃긴 일이라고 일컬어진다. 유송에서 문제는 명주 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으니 다른 군주들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화와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기록은 인물묘사에 대하여 금상첨화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서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송서》 중의 인물들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3. 면밀한 형상 묘사

중국의 역사저작은 우언과 형상성이 풍부하다. 《사기》는 인물을 쓸 때, 관건이 되는 부분에서는 늘 형상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했는데, 전기 속 인물의 아름다움과 추악함, 속임과 올바름, 기쁨과 노함, 웃음과 울음,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문장 속에 살아있는 듯이 썼다²¹⁾. 《송서》는 《사기》의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인물묘사의 극히 세 부적인 것까지도 그려냈고, 또한 과장 적인 표현을 통해 단지 몇 마디로

19) 《宋書》66卷〈何尚之傳〉“元嘉二十三年，造玄武湖，上欲於湖中立方丈，蓬萊，瀛洲三神山，尚之固諫乃止。時又造華林園，盛暑役人工，尚之又諫，宜加休息，上不許，曰“小人常自暴背，此不足爲勞”

20) 《晉書》5卷〈惠帝紀〉“言何不食肉糜”

21) 範艷清, 《史記與魏晉南北朝文學》, 長沙理工大學 碩士論文, 2010年 5月, 潘定武, 《史記寫人成就探略》, 陝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03年 5月.

인물의 운치를 나타냈다.

〈後妃列傳〉에서는 문제가 潘淑妃를 총애하자 袁皇后가 이로 인해 발병한 일을 썼다.

“황제는 潘淑妃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예절이 심히 도타웠지만, 袁氏에 대하여는 등한히 했다. 袁皇后는 매번 황제에게 돈과 비단으로 도와주길 청했다. 황제는 평소 절약하고 검소했던바, 얻은 것은 불과 3, 5만 이고, 3, 5십 마리아었다. 후에 반 숙비를 총애하고 후궁에게 사랑이 기울어져 있어 청하기만 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모두가 말했다. 원 황후가 듣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반 숙비가 30만 전을 집에 주기를 청한다고 하면서 황제의 뜻을 봤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사랑과 원망이 깊어져 병을 빌미로 다시는 황제를 만나지 않았다. 황제가 매번 원 황후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녀는 꼭 회피했다. 황제는 여러 번 찾았으나 찾질 못했다. 始興王 浚의 여러 서자가 안부를 물어도, 원 황후는 눈길 조차 주지 않았다. 드디어 원 황후는 분개한 나머지 발병이 났다. 원가 17년(440) 병이 위독해지자 황제는 원 황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원 황후는 오랫동안 황제를 보더니,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²²⁾

원 황후의 병이 위독해지자 문제는 “執手流涕”(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했다. 두 사람은 그래도 젊었을 때 결혼 한 부부이다. 문제는 원 황후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하여 슬픔을 느꼈다. 이때, 원 황후는 내심의 감개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視上良久” 했지만, 선뜻 말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생긴 문제에 대하여 한탄하자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속 좁음을 후회하자니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으

22) 《宋書》41卷〈後妃列傳〉“上待後恩禮甚篤，袁氏貧薄，後每就上求錢帛以贖與之。上知勝節儉，所得不過三五萬，三五十匹。後潘淑妃有寵，愛傾後宮，鹹言所求無不得。後聞之，欲知信否，乃因潘求三十萬錢與家，以觀上意，信宿便得。因此怨恨甚深，稱疾不復見上。上每入，必他處回避。上數掩伺之，不能得。始興王浚諸庶子問訊，後未嘗視也。後遂憤患成疾。元嘉十七年，疾篤，上執手流涕問所欲言，後視上良久，乃引被覆面”

며, 자신의 운명을 애도하자니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온정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 그래서 할 수 없이 “引被覆面”하였다. 그녀는 애증의 감정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원 황후는 황제의 총애를 잃자 분개하여 죽었다. 문제는 원 황후보다 반 숙비를 더 잘해주었다. 그러나 문장에서 “上待後恩禮甚篤”이라고 말한 것은 풍자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묘사는 인물의 성격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짧은 편 폭 속에 인물을 살아 움직이듯이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檀道濟傳〉에서는 세부적인 묘사를 통하여 단도제가 비록 맹장이지만 정치적 요령이 부족한 면을 드러냈다.

“檀道濟는 군부에 들어가 謝晦와 함께 투숙했다. 사회는 그날 밤 두렵고 불안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단도제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을 잤다. 사회는 단도제에 대하여 탄복했다.”²³⁾

少帝 劉義符를 죽이기 전날 밤에 많은 전쟁을 겪었던 사회가 “竦動不得眠” 했지만 단도제는 “就寢便熟”했다. 표면적으로 도제의 뛰어난 담력과 기백을 찬미하고 있지만 실은 그에게는 정치적인 요령이 전혀 없음과 폐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을 암시한 것이다. 후에 그는 문제 유의 용에 의해 이용당해 사회를 반격하고 토벌하기에 이르렀다.

〈武帝紀下〉에서 孝武帝에 대한 묘사는 살아있는 듯하다.

“孝武 大明 중에 언덕에 기거하던 음침한 방을 허물고 玉燭殿을 세워 군신들과 같이 관람하였다. 담장 머리 위에 흠이 있었고 벽 위에 등롱이 칩처럼 걸려있었으며 삼노꾼이 이를 치켜들고 있었다. 侍中 袁頌은 황제의 검소한 덕을 칭찬했다. 효무제는 대답하지 않고 말일하는 노인이 이를 얻으니 이미 과분하다고 혼자 말로 했다.”²⁴⁾

23) 《宋書》43卷〈檀道濟傳〉“道濟入領軍府就謝晦宿。晦其夕竦動不得眠，道濟就寢便熟，晦以此服之”

24) 《宋書》3卷〈武帝紀下〉“孝武大明中，壞上所居陰室，於其處起玉燭殿，與群臣觀

시중 원반은 효무제 劉駿을 훈계하기 위하여 무제 유유의 근검 소박함을 칭찬했다. 그러나 원반이 빙빙 돌려 말하자 효무제는 못 들은 척하고 혼자 말로 증얼거리면서 발일하는 노인이 이것들을 얻으니 이미 과분하다고 말했다. 효무제의 태도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무제 유유의 근검 소박함과 효무제의 극도에 달한 사치스러움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한 개인의 성격과 영혼은 놀랄만한 중대한 사건과 격렬한 모순과 충돌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일상생활 혹은 몇몇 사소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때는 오히려 몇몇 사소한 일에서 인물의 진정한 성품이 나타난다. 《송서》의 인물묘사는 개성이 풍부하고, 이러한 개성은 생동감 있게 묘사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법은 후인들에게 예술적 범례를 제공했다.

4. 개성적 언행 선택

《송서》는 개성이 있는 언행을 선택하여 인물 성격을 그려내는 데에 뛰어났다. 사서에 선별되는 사람들은 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어서 그 인물에 대한 경력과 사적이 많다. 심약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언행을 골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술로 역사적 인물의 면모를 재현했다.

남조의 풍류 인물은 대부분이 소탈함과 오만함으로 유명할 뿐 냉정하고 엄숙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는데, 소혜개가 그중의 하나이다. 〈蕭惠開傳〉에서는 그가 총신 何堰과 논쟁하다 관직에서 물러난 일을 묘사했다.

“侍中 何堰과 積射將軍 徐冲의 일로 논쟁을 하였다. 하언의 지위와 대우가 높음에도 혜개가 굴종하지 않자 하언은 화가 나 수하에게 이 일을 규명하여 혜개를 탄핵하려 했다. 혜개는 奏章을 보내 스스로 면직되길 청했

之。牆頭有土，壁上掛葛燈籠，麻繩拂。侍中袁頌盛稱上儉素之德。孝武不答，獨曰“田舍公得此，以為過矣”

다. …… 당시에 하연은 황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이 일로 소혜개가 황제의 뜻을 거스르자 황제는 관계 관아에 명령하여 혜개가 병이 많다고 구실을 달아 그를 면직시켰다.”²⁵⁾

소혜개는 직위에 대하여 개의치 않았고, 더욱이 돈을 제멋대로 처리했다. 그에 대하여 “누이동생이 桂陽王 休範에게 시집가고 여식이 또 世祖의 아들에게 시집가는 데에 보낼 밑천이 이천만은 되어야 했다. 豫章內史는 그가 제멋대로 거두어들인다고 들었는데 이로부터 고을에서 혜개는 탐을 내고 사납다는 소리가 드러났다.”²⁶⁾고 썼다. 그러나 만약에 그를 탐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오이다.

“애초에 惠開府의 錄事參軍到 希微가 蜀人에게 백 만에 달하는 빚을 저 빚쟁이가 협박하자 희미는 혜개와 같이 京城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혜개와 희미는 함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蜀地로 와야 한다고 여겼지만 그를 데리고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부끄러워했다. 희미는 마구간에 있는 60마리 말로 빚을 갚길 청했다. 이렇듯 그의 심사와 의지는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 혜개가 촉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밑천 이천여 만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하나도 남지 않았다.”²⁷⁾

이러한 행위는 그가 의를 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보는 성격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소혜개의 특이하고도 독단적인 한 면을 설명할 수는 있다. 傳에서 소혜개가 군인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을

25) 《宋書》87卷〈蕭惠開傳〉“與侍中何堰爭積射將軍徐沖之事。堰任遇甚隆，惠開不爲之屈，堰怒，使門下推彈之。……時堰寵方隆，由此忤旨，別勅有司以屬疾多，免惠開官”

26) 《宋書》87卷〈蕭惠開傳〉“妹當適桂陽王休範，女又當適世祖子，發遣之資，應須二千萬，乃以爲豫章內史，聽其肆意聚納，由是在郡著貪暴之聲”

27) 《宋書》87卷〈蕭惠開傳〉“惠開府錄事參軍到希微負蜀人債將百萬，爲賁主所制，未得俱還。惠開與希微共事不厚，以爲隨其同上，不能攜接得還，意恥之。廩中凡有馬六十匹，悉以乞希微償責，其意趣不常皆如是。……惠開自蜀還，資財二千餘萬，悉散施道路，一無所留”

실었다.

“그해 會稽太守 蔡興宗은 郡城에 가고 惠開는 휴가를 내어 京口에서 도성으로 돌아오다가 曲阿에서 그들 둘은 서로 만났다. 혜개는 이전에 홍종과 명성과 지위가 같았지만 혜개는 홍종이 자기를 보러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하에게 蔡會稽 부하가 만약에 와 물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혜개는 부하들을 엄격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명을 위반하지 않았다. 채홍종이 혜개의 배 안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누구인지 몰라 사람을 보내어 한배 한배씩 물어봤다. 혜개의 배는 10여 척이고 인원은 2, 3백 명이었는데 모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갔다.”²⁸⁾

소혜개는 재능이 있지만, 재능을 펼 기회가 오지 않자, 뽐내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부하에게 채홍종의 탐문에 아랑곳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소혜개 수하 2, 3백 명이 그의 말대로 “低頭直去, 無一人答者”했다.

傳에서는 소혜개가 화초를 제거하고 하얀 버드나무를 심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행하지 못하면 백 세가 되는 수명이라도 요절한 것과 같다.”²⁹⁾라고 썼다. 소혜개가 화가 나 속이 끓어 발병하고 피를 토한 것에 대하여, “발병이나 피를 토한 것이 간과 폐 같은 곳에 심히 많다.”³⁰⁾라고 썼는데, 이처럼 죽는 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는 특이하고 독단적이며 군대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강직하며 아첨하지 않는 소혜개의 형상을 잘 그려냈다.

28) 《宋書》87卷〈蕭惠開傳〉“其年，會稽太守蔡興宗之郡，而惠開自京口請假還都，相逢康欲於曲阿。惠開先與興宗名位略同，又經情款，自以負釁摧屈，慮興宗不能諳己，戒勒部下“蔡會稽部伍若借問，慎不得答。”惠開素嚴，自下美敢違犯，興宗見惠開舟力甚盛，不知爲誰，遣人曆舫訊，惠開有舫十餘，事力二三百人，皆低頭直去，無一人答者”

29) 《宋書》87卷〈蕭惠開傳〉“人生不得行胸懷，雖壽百歲，猶爲夭也”

30) 《宋書》87卷〈蕭惠開傳〉“吐如肝肺者甚多”

〈王鎮惡傳〉에서는 왕진악의 개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묘사했다.

“진악은 장사들에게 식사를 마치라고 명령하고 배를 버리고 강 언덕으로 올라갔다. 渭水는 급류이어서 여러 군함이 갑자기 흐르는 물길을 따라 갔다. 이때 姚는 장안성 아래에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수만 명 같아 보였다. 진악은 군사를 위로하며, “경 등 여러 사람의 집이 강남인데, 이곳은 장안성 북문 밖으로, 집으로부터 만 리나 떨어져 있고, 배와 옷과 양식이 이미 물결에 따라 흘러간 이상, 어찌하여 삶을 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오직 죽을 때까지 싸워야 큰 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을 무리가 없다.”³¹⁾

심약은 劉裕가 군대를 이끌고 북벌할 때, 왕진악이 수군을 이끌고 위수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너무 깊숙이 들어간 상황으로 그의 비범한 용기와 강함을 표현했다. 그러나 왕진악의 성격은 복잡하다. 왜냐하면, 그에겐 군사적 재능이 있는 동시에 탐욕적인 일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關中은 풍성하고 온전했으며, 창고에는 쌓인 것이 많았다. 진악은 온갖 궁리를 하면서 거두어들이었는데, 자녀의 옥과 비단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고조 유유는 그의 큰 공 때문에 힐문하지 않았다. 진악은 관직이 征虜將軍으로 나아갔다. 그때 진악이 이미 장안을 공략했다. 진악은 고조가 야심이 있다고 할까 두려워 진악은 그의 손수레를 숨겼다. 고조는 암암리에 사람을 보내 손수레를 찾았는데, 그 손수레는 담장 가에서 발견되었고 손수레 위에 원래 장식되어있던 금과 은이 하나도 남김없이 후벼졌다. 고조가 이를 듣고 안심했다.”³²⁾

31) 《宋書》45卷〈王鎮惡傳〉“鎮惡令將士食畢，便棄船登岸。渭水流急，倏忽間，諸艦悉逐流去。時姚私屯軍在長安城下，猶數萬人。鎮惡撫慰士卒曰“卿諸人並家在江南，此是長安城北門外，去家萬裏，而舫乘衣糧，並已逐流去，豈復有求生之計邪!”唯宜死戰，可以立大功，不然，則無遺類矣”

32) 《宋書》45卷〈王鎮惡傳〉“是時關中豐全，倉庫殷積，鎮惡極意收斂，子女玉帛，不可勝計。高祖以其功大，不問也。進號征虜將軍。時有白高祖以鎮惡既克長安，藏姚私偽擎，爲有異志。高祖密遣人覘軍所在，私軍飾以金銀，鎮惡悉剔取，而棄軍於垣側。高祖聞之，乃安”

심약은 왕진약의 용기와 계략을 묘사하면서 그의 탐욕까지도 썼는데, 특히 전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쓴 것은 후자를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재물에 대한 진약의 탐욕으로 고조 유유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를 피한 것 또한 그에게 지략이 있음을 보여준다. 傳은 이 사건을 통해 장수의 형상을 살아있는 듯 묘사했고 남김없이 그려냈다.

〈王玄漠傳〉에서는 왕현막이 소탐대실한 사례를 선택했다.

“북벌할 때 조정은 왕현막에게 寧朔將軍 직을 맡게 하여 선봉 부대를 통솔하고 황하에 진입하여 輔國將軍 蕭斌의 지휘를 받으면서 병사를 이끌고 石高와 石敖를 공격하자 적의 장수들이 도주했다. 滑臺를 포위했지만 수십 일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했다. 魏國 황제 拓跋燾가 마침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을 진공했다. 군대의 북소리가 천지에 진동했다. 왕현막의 군대는 엄격하고 정비가 잘 되어있었으며 무기는 우수했다. 그러나 왕현막은 고집불통이고 자주 사람을 죽여 위엄을 세웠다. 석고와 석오를 막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성안에 초가집이 많이 있었는데, 장수들이 불화살로 초가집을 태우길 요청했다. 왕현막은 전리품이 적어질까 봐 그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가집을 철거했다. 魏國의 장수들이 이끄는 구원병이 도착했을 때 왕현막 휘하 장수들은 수레로 보루를 쌓아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왕현막이 따르지 않자 장졸들 사이에는 원망의 말이 나돌았다. 그는 각종의 재화를 얻기 위해 포 한 필로 다른 사람과 배 800개를 바꾸었는데, 이로써 인심을 잃었다. 탁발도 군대가 왔을 때, 현막은 재빠르게 퇴거하였는데, 그의 부하 사병들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 죽었다.”³³⁾

원가 27년(450)에 시작된 宋과 魏의 전쟁은 처음에는 송군에게 유리하

33) 《宋書》76卷〈王玄漠傳〉“及大舉北征，以玄漠爲寧朔將軍，前鋒入河，受輔國將軍蕭斌節度。玄漠向碓撤，戍主奔走，遂圍滑臺，積旬不克。虜主拓跋燾率大眾號百萬，鞞鼓之聲，震動天地。玄漠軍眾亦盛，器械甚精，而玄漠專依所見，多行殺戮。初圍城，城內多茅屋，衆求以火箭燒之，玄漠恐損亡軍實，不從。城中即撤壞之，空地以爲窟室。及魏救將至，衆請發車爲營，又不從。將士多離怨，又營貨利，一匹布責人八百梨，以此倍失人心。及拓跋燾軍至，乃奔退，麾下散亡略盡”

게 보였지만 중국에는 패배했다. 이에 대하여 왕현막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그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인심을 잃은 것이고 마음을 한곳에 전념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긴장되고 격렬한 전쟁 중에서도 이익을 챙긴 걸 보면 놀랍기만 하다.

《隱逸傳》에서 劉凝之에 대한 묘사 역시 흥미진진하다.

“어떤 사람이 유옹지가 신은 나막신을 자기 것으로 오인하자 유옹지는 이 신발이 해졌으니 집안 식구들에게 새것을 찾아 당신에게 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후에 이 사람이 밭에서 잃어버린 나막신을 찾고 유옹지에게서 받은 나막신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유옹지는 갖지 않았다.”³⁴⁾

은사는 일반적으로 특이한 거동이 있다. 어떤 사람이 유옹지가 신은 신발을 자기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유옹지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 신발을 신어 해졌다고 말하면서 집안 식구에게 새것을 찾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 후에 그 사람이 밭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았는데, 그의 속스러운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유옹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발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심약은 이 은자의 사상과 행동을 살아있는 듯 그려내어 은자의 비범하고 탈속적인 정신매력을 느끼게 했다.

Ⅲ. 결 론

《송서》는 인물 형상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말해서 《史記》, 《漢書》와 같이 논할 수는 없지만 《後漢書》와 《三國志》 등 사서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다.

34) 《宋書》93卷《隱逸傳》“有人嘗認所著屐，笑曰“仆著之已敗，令家中覓新者備君也。”此人後田中得所失屐，送還之，不肯復取”

《송서》에는 유송 시기의 많은 인물을 기록했는데, 특히 사족 계층 인물의 언행을 쓴 부분은 문필이 상당히 생동적이어서 문학적 감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형상적인 묘사로 인해 각 부류의 인물은 서로 다른 특색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인물의 유형과 감화력은 풍부하다.

《송서》의 인물묘사 문장은 우미하고 유창하며 언어는 간결하고 세련되며, 또한 문체를 중시하여 인물들의 언어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일궈냈다.

《송서》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사서로 그 당시의 사회 모습과 가족생활 속에서의 언행에 관한 생동감 있는 자료가 풍부하여 중국 고대문학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유산인 동시에 유송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다.

《송서》는 유송 문학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이고 중국 전기 문학사에서도 지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참고문헌>

- (明)曹臣編纂, 喻嶽衡點校, (清)郝彭行編纂, 喻嶽衡點校 《舌華錄·宋瑣語》, 嶽麓書社, 1985.
- 陳清泉, 《中國史學家評傳》, 中州古籍出版社, 1985.
- 範艷清, 《史記與魏晉南北朝文學》, 長沙理工大學碩士論文, 2010.
- 韓兆琦, 《中國傳記文學史》, 河北教育出版社, 1992.
- 李柏, 《世說新語人物形象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論文, 2005.
- 李敏, 《宋書人物描寫的特色》, 《遼寧行政學院學報》, 2007年03期.
- 李祥年, 《漢魏六朝傳記文學史稿》, 復旦大學出版社, 1995.
- 劉成, 《世說新語人物塑造方法淺析》, 《語言文學研究》, 2011.
- (南朝宋) 劉義慶著, 餘嘉錫箋疏, 《世說新語箋疏》, 上海古籍出版社, 1993.
- 丘敏, 《六朝史學》, 南京出版社, 2003.
- 潘定武, 《史記寫人成就探略》, 陝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03.

- (梁)沈約, 《宋書》, 北京中華書局, 1974.
楊樹增, 《史記藝術研究》, 北京學苑出版社, 2004.
餘冠英, 《士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87.

< Abstract >

《宋書》(Song-Shu) has achieved relatively high performance in painting figures, of course not to mention 《史記》(Shi-Ji) or 《漢書》(Han-Shu) in general, but to compare it with librarians such as 《後漢書》(Hou-Han-Shu) and 《三國志》(San-Guo-Zhi).

《宋書》(Song-Shu) recorded many figures from the Liu-Song period, especially the writing and writing of the four-legged figure are quite lively, and therefore valuable literary appreciation. Each kind of perso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haping and describing historical personas, and the type of persona is rich and has a great influence.

The sentence of 《宋書》(Song-Shu)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terms of the characters' language, with its simplicity, sophistication, and emphasis on style.

Key Words : 남조(Nan Dynasty), 유송(Liu-Song), 송서(Song-Shu), 심약(Shen-Yue), 인물묘사(Character Description), 기교(Skill), 방법(Method), 형상(Shape)

